

BIBLICAL PRINCIPLES FOR YOUR FINANCES**재정에 관한 성경적 원리****By Yessica Moreno**

우리는 달력에 일정을 잡고, 해야 할 일을 기록하면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곤 한다. 갑자기 중요한 행사가 취소되고, 업무 약속이 보류되며, 평범한 일상조차도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재정적, 정서적 안정감은 흔들리고, 불안과 걱정이 생긴다. 이러한 어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개인이든 공동체든, 언젠가는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Many of us keep calendars for noting and scheduling each of our activities, trusting everything will unfold as planned. But sooner or later – whether at work or within the home – unexpected crises disrupt our routine. Suddenly, important events must be cancelled, work commitments are put on hold, and everyday tasks are affected by circumstances beyond our control. In those moments, our financial and emotional stability can be shaken, generating uncertainty and concern. No person or community is exempt from these difficult challenges that eventually reach us all.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재정을 다루는 성경의 원리를 깊이 새겨야, 그 원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모든 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중 잠언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함께 살펴보자.

In every economic crisis we experience,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principles the Bible offers for managing our finances so we can live with peace and confidence as we work through our challenges. Throughout Scripture, God has given us wisdom for handling every resource He places into our hands. Here are some basic principles found in the book of Proverbs and other parts of the Bible:

1. **현실을 인식하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언 13:7) 회사의 수익이나 가정의 소득이 줄었다면 그에 맞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고급차를 더 경제적인 차로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12) 이 말씀은 우리에게 풍요의 때도 있고 절제의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이 두 상황 모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8)

Recognize our true situation. *"Some who are poor pretend to be rich; others who are rich pretend to be poor"* (Proverbs 13:7). If company revenues or our family income has decreased, we must adjust our spending. For example, I know people whose businesses were struggling so they decided to trade in a luxury car for a more economical one. The apostle Paul said, *"I know how to live on almost nothing or with everything"* (Philippians 4:12). This helps us understand that there are times of plenty and times of austerity. We can be grateful to God in both circumstances. *"So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1 Timothy 6:8).

2.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분별하라.**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지금 사려는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괜히 샀다가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 틈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불필요한 것에 돈을 써도 "좋은 때"라는 것은 없다. 값을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는 빚을 지기 전에 조언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잠언 21:20)

Distinguish between what we want and what we need. Before spending, it helps to ask: Do we really need what we are about to buy, or will it just take up space among unused items? There never is a right time to waste money on non-essentials. There is wisdom in seeking counsel and advice before taking on loans we might not be able to repay. *"The wise have wealth and luxury, but fools spend whatever they get"* (Proverbs 21:20).

3.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너그럽게 반응하라.** 당신의 믿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Be sensitive and generous toward others' needs. Pray and help others as your faith leads. While trusting in God's protection and provision for us, we also can become the answer to someone else's prayer. *"If you help the poor, you are lending to the Lord – and He will repay you!"* (Proverbs 19:17).

4.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앞날이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부정직한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 속임수, 책임 회피,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빠른 결과를 얻으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함과 헌신으로 일하라고 권면한다.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28:19)
- 근면함을 버리고 손쉬운 해결책의 환상을 쫓으면 결국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책임감, 시간 엄수, 탁월성으로 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실 수 있는 문을 열게 된다.

Let us act with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in our work. When facing economic pressure or uncertainty, we may be tempted to take shortcuts – cheating, avoiding responsibilities, or getting involved in dishonest practices to achieve quick results. However, the Bible encourages us to work with integrity and dedication, knowing steady and honest effort is a primary means through

which God provides. *"A hard worker has plenty of food, but a person who chases fantasies ends up in poverty"* (Proverbs 28:19). Abandoning diligence to pursue the illusion of an easy solution can lead to painful consequences. On the other hand, when we work with responsibility, punctuality, and excellence, we honor God and open the door for Him to present us with new opportunities.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과 안정으로 가득 차게 해주기를 바란다. 성경의 권면을 기억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May God's promises to supply every one of your needs fill you with peace and security. Remember the Bible's exhortation: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because God has said, 'Never will I fail you. Never will I abandon you'"* (Hebrews 13:5).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직장이나 가정에서 재정적 위기를 겪을 때,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How do you typically respond when confronting a financial crisis, whether in the workplace or in your home?
2.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신용거래나 대출에 의존하기는 얼마나 쉬운가요? 왜 우리는 종종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걸까요?
When expenses exceed income, how easy is it to rely on credit to make up the difference? Why is reducing expenditures often regarded as a last resort?
3. 당신은 "필요"와 "욕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가 "새 차가 필요해요" 또는 "새 TV가 필요해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욕구에 불과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 중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What in your opin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a 'need' and a 'want'? When someone says, "I need a new car" or "I need a new TV," how would you evaluate whether it is really a need, or simply a want? Can you think of a biblical principle regarding how God provides for our needs – as opposed to fulfilling our wants?

4. 이 만나에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못할 때조차도 타인의 필요를 고려하고, 관대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한다면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It is suggested that even when our financial situations are challenging, we still should consider the needs of other people and to respond with generosity. Do you agree with this? Why or why not?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역대상 29:11-13; 잠언 11:24-25, 13:11, 15:16, 21:13, 30:8-9; 마태복음 6:19-21, 30-34

1 Chronicles 29:11-13; Proverbs 11:24-25, 13:11, 15:16, 21:13, 30:8-9; Matthew 6:19-21, 30-34

- **(역대상 29:11-13)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잠언 11:24-25) 24**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 **(잠언 13:11) 11**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 **(잠언 15:16) 16**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잠언 21:13) 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 **(잠언 30:8-9)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 **(마태복음 6:19-21,30-3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우리의 삶과 일에서 재정 문제만큼 민감하고 불안정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걱정하게 되고,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느껴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번 주는, 당신의 재정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Few things in our lives and our work are as sensitive and volatile as our finances. We worry when we feel we do not have enough, and we worry if we have enough but are fearful about losing it. This week might be a good time to re-evaluate your attitudes and actions regarding your finances, especially in terms of your relationship with God.

이것은 신뢰할 만한 친구, 멘토, 또는 당신이 속한 소그룹과 함께 깊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더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This could generate an excellent and enlightening discussion with a trusted friend, mentor, advisor, or small group in which you are a part. Consider how can you help one another gain a clearer biblical perspective on our money – especially in times of crisis.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